

■ 재보선 참패 민주당 쇠신 후폭풍

“오만과 안주 반성... 체질 확 바꾸자”

“6·2승리 도취 안이한 공천에 패배”

“언젠가는 올 일로, 다만 이제야 온 것일 뿐이며 처절한 쇠신 없이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거론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의 평가다. 그동안 2차례의 재보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민주당의 내부 동력으로 일궈낸 승리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여권의 독선에 따른 반사 이익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당장 대선과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와 주류 측이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보려는 그들의 기록권에 안주했다는 비판과 함께 비주류도 안이한 자세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쇠신만이 민주당의 발전과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 수 있다는 담론이 형성되면서 ‘쇠신’이 민주당에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민주당에서는 쇠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북받쳐 터져 나왔다.

박지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야당은 치열할 것 생명인 재보선에서 어떠한지에 대해 당내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지도부의 안이한 공천 결과도 책임이 있다”며 쇠신을 다짐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근본적인 반성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근태 상임고문도 성명을 통해 “국민이 민주당의 기록권 안주와 오만 때문에 벌한 것을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변화와 혁신을 포기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무서운 회초리”라고 규정하고 “제2 창당의 각오로 반성하고 쇠신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정권과 한나라당의 같은 실정에도 참패한 것은 과감한 변화를 바라는 민심에 둔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석 민주당정책연구소장은 “재보선은 예정된 패배 아니었느냐. 언제까지 민심의 섹명으로 있을 거냐”고 힐난했다.

여기에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재보선 결과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당이 더 강하게 단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재확인하는 장으로 만들자”고 독려했으며 비주류 연합체인 쇠신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철저한 반성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쇠신 모드에 민주당 주류 측은 아직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류 일각에서는 비주류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 패배 책임론’과 관련, 9월 전당대회를 통해 심판받겠다는 정면돌파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잘못하면 재보궐 선거 패배로 부상한 ‘쇠신론’이 당권 투쟁의 진흙탕에 빠지면서 민주당이 미래가 더욱



장세환, 김영진, 문학진, 주승용 의원(왼쪽부터) 등 민주당 비주류인 희망쇠신연대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7·28 재보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힌 후 허리 굽혀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도부 총사퇴와 임시지도부 구성을 요구했다. /연남뉴스

암담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류는 과감하게 기록권을 던지는 모습으로 쇠신을 기반을 조성하고 비주류 측에서도 실현 가능한 쇠신안을 내세워 9월 전당대회를 민주당 ‘쇠신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된 쇠신론이 당권 투쟁의 도구로 변질된다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주류가 먼저 기록권을 던지고 비주류와 함께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쇠신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왕의 남자’ 복귀... 친이계 힘 받나

친박과 힘겨루기... 여권 권력지형 변화 불가피

한나라당이 28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서울을 평영과 총북 총주 등 권력지에서 ‘안승’하면서 향후 당내 권력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왕의 남자’ 이재오 당선자의 복귀로 친이계는 더욱 막강한 힘을 얻게 됐다.

재보선의 승리는 7·14 전당대회를 통해 등장한 안상수 대표 체제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잇단 재보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의 사슬을 끊은 만큼 당내 비주류의 공격에서 일단 자유스러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안 대표는 은평을에서 승리한 이재오 당선자와도 돈독한 관계여서, 이 당선자가 안 대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큰 변화는 여권 내 전반적인 힘의 관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2인자’로 불리는 이 당선

자가 2년여 만에 여의도에 ‘재입성’했기 때문이다. 주류 친이(친이명박)계에 강력한 구심점이 형성되면서 당장 약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권 전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상득 의원 측과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상득 의원 측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해온 정두언 최고위원과 이 당선자가 협공을 하면서 이상득 의원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당선자의 복귀는 박근혜 전 대표 측과의 더욱 불편한 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2007년 대선 경선과 2008년 총선 공천을 거치면서 두 사람간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다는 시각이 많다.

친박 일각에서는 이 당선자가 당분간은 ‘조용한 행보’를 보이겠지만, 오

래지 않아 ‘박근혜 힘 빼기’에 나서지 않겠느냐며 벌써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당선자가 하반기 개헌 정국에서 안상수 대표가 제기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자인 박 전 대표와 정면 충돌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친박계 일각에선 이 당선자가 친이 ‘김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김문수 경기지사나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같은 세 인물들을 ‘박근혜 대항마’로 키우려 하지 않겠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특히 야권에선 한나라당이 ‘박근혜-이재오-이상득’ 등 3대(대) 세력간 팽팽한 힘겨루기로 ‘세나라당’이 될 것이라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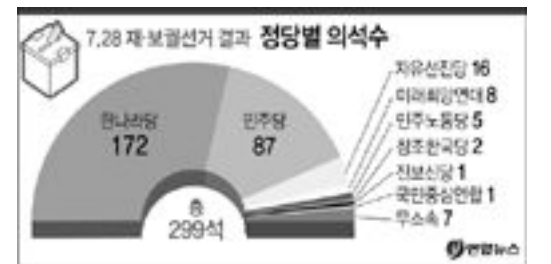
‘거여’ 한나라 172석으로

민주 87석... 격차 더 벌어져

전국 8개 지역에서 치러진 7·28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며 여야간 국회 의석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선거 결과, 한나라당은 5석에서 승리, 기존 167석에서 172석으로, 민주당은 3곳에서만 이겨 기존 84석에서 87석으로 의석 수가 늘었다. 또 양당 간 의석수 차이는 83석에서 85석으로 더 커졌다.

이로써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172석, 민주당 87석, 자유선진당 16석, 미래희망연대 8석, 민주노동당 5석, 창



조한국당 2석, 진보신당 1석, 국민중심연합 1석, 무소속 7석이 됐다. 특히 현재 한나라당은 8석의 의석을 가진 미래희망연대와 합당이 의결된 상태에서 조만간 합당 절차가 완료되면 한나라당의 의석수는 개헌선(200석)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180석에 이를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2지방선거 공명선거 지수 장흥 최고 여수 최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공명선거 지수는 장흥이 가장 높았고, 여수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자체 개발한 공명선거 지수를 22개 시·군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에 83.6점을 받은 장흥군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 지수(FEI)는 지역별로 공명선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 준보선선거지수, 정책선거지수, 참여선거지수 등 세 가지 항목에 가중치를 차등 또는 균등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다. 완도군은 80.2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광양시(78.9점), 영암군(77.8점), 담양군(77.2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장흥군의 경우 ‘선거범죄 0%, 투표참여 100%’(일명 제로백 운동) 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보면서 공명선거가 가장 잘 이뤄진 것으로 전남도 선관위는 평가했다. 반면, 여수시는 100점 만점에 고작 52.9점을 얻는데 그쳐 ‘꿀재’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외 구례군(60.2점), 진도군(60.5점), 강진군(62.8점), 순천시(63.0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22개 시·군 평균 점수는 70.5점으로 나타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흥군의 경우 ‘선거범죄 0%, 투표참여 100%’(일명 제로백 운동) 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보면서 공명선거가 가장 잘 이뤄진 것으로 전남도 선관위는 평가했다.

반면, 여수시는 100점 만점에 고작 52.9점을 얻는데 그쳐 ‘꿀재’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외 구례군(60.2점), 진도군(60.5점), 강진군(62.8점), 순천시(63.0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22개 시·군 평균 점수는 70.5점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80.2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광양시(78.9점), 영암군(77.8점), 담양군(77.2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은 매각 결정때 지역민 의견 수렴돼야”

민주 조영택 의원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갑)은 29일 광주은행의 매각방안과 관련, 진동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장과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건전하고 공익성 높은 지배구조를 통해 인수주체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매각원칙

이 지켜져야 한다”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30일 예정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억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만? 우주의 천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도 망했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같이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에 앞서 강운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분리매각 방식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광주은행의 매각문제를 놓고 ▲광주은행이 1968년도에 지역 상공인들에 의해 설립된 역사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역할 ▲2000년 이후 지속돼온 흑자 기조와 경영실적 등을 감안할 때 지

역경제인들이 주축이 된 건전하고 공익성 높은 지배구조를 통해 인수주체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매각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분리매각 방안만 확정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공고안 작성시 협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고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 구분 | 광주교육대학교(제2기) |
|------------|---|
| 개강일시 | ·토요일 오후반 2010. 9. 4(토)14:10 |
| 모집기간 | 2010. 7. 23(금)~9. 4(토) |
| 수업기간 | 2010. 9. 4(토)~2011. 2. 26(토) (6개월 24주) |
| 모집인원 | ·기초반:30명 |
| 수업시간 | ·매주토요일 오후반 14:10~18:00 |
| 수강료 | ₩ 300,000 ·우체국:503557-01-005018(예금주:광주교대) |
| 수료후 특전 |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 수료증 수여 · 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직성 병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
| 문의 | ☎ 062)520-4243 010-9886-8964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체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 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억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만? 우주의 천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도 망했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 대학/교원 | 교육과정 | 기간 및 요일 | 강의시간 | 수강료 | 기타연차 |
|-------|----------|-----------------|--------|----------|------------|
| 조선대학교 | 관상 초급 | 9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 19-22시 | 150,000원 | 230-7700-2 |
| 평생교육원 | 관상 고급 | 8월 31일부터 매주 화요일 | 19-22시 | 150,000원 | |
| 동강대학교 | 사주명리학 초급 | 9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 19-21시 | 100,000원 | |
| 평생교육원 | 사주명리학 고급 | 9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 19-21시 | 100,000원 | 520-2516 |

● 조선대 등록 - 8월 2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 2일 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연구원장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010-3644-7232**

국영지정 장교(장교보수교육) 및 한국사입문(문헌) 전문 직업교육기관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 연수목적: 한자·한문의 올바른 교육을 담당할 실력과 자격을 겸비한 유능한 교사 양성

■ 연수대상: 남·녀·노·소(한자급수, 학력제한없음) 18세 이상

■ 모집기간: 2010년 7월 28일(수)~2010년 8월 31일

■ 수강료: 300,000원 (농협 175375-56-065137 예금주: 이종순)

■ 모집인원: 각 과정별 25명

■ 접수처: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건강관리회부근)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 교육과정: ●중임연수원과 동일한 과정으로 명칭의 변경을 합니다.

| 과정명 | 교육과목 | 개강/연수기간 |
|--------------------|--|--|
| 제 11기 한자지도사 (기초한문) | · 부수해설, 사자소학 · 1,800자(삼행한자)자원풀이 · 중학교한문교과서 단문/신문/한시 한문법 지도법 · 중학교 한문교육과정 해설 | 토요일 9월 12일 14:00~18:00 화요일 9월 7일 14:00~18:00 / 2010.9.29월 4일~ 2011.12.11월 24일 |
| | · 추구법· 명심보감 · 중·고교 한문교과서 단문/신문/한시 한문법 · 고등학교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 금요일 9월 3일 09:00~13:00 / 2010.9.29월 3일~ 2011년 2월 11일 24일 |
| 한문지도사 1급 (심화과정) | · 소학·대학 · 격몽요결·중용 | 금요일 9월 3일 14:00~18:00 / 2010.9.29월 3일~ 2011년 2월 11일 24일 |

한문지도사 특급과정(논어,맹자)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수료후 특전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 및 이수증 수여
- 각급학교(보통학교) 감사 및 한자급수 시험반 출감
- 시·구청·문화·복지센터 한자지도반 감사
- 한문학회 개설 및 한자·한문지도사 감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국가공인자격관리 운영기관: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한국사교육진흥회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 한국한자·한문지도사연수원 시행

문의안내 ☎ 062)366-9666, 367-8666
e-mail: hanja-exam@hanmail.net / FAX: 062)866-9779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 구분 | 전남대학교(5기) | 광주여자대학교(11기) |
|------------|---|---|
| 개강일시 | · 월요일 주간반: 2010. 8. 30(월) 09:00 · 야간반: 2010. 8. 30(월) 18:00 | · 금요일 오전반: 2010. 9. 3(금) 09:10 · 토요일 오전반: 2010. 9. 4(토) 09:10 |
| 모집기간 | 2010. 7. 23(금)~8. 30(월) | 2010. 7. 23(금)~9. 4(토) |
| 수업기간 | 2010. 8. 30(월)~2011. 2. 21(월) (6개월 24주) | 2010. 9. 3(금)~2011. 2. 26(토) (6개월 24주) |
| 모집인원 | · 기초반: 주·야간반 각 30명 · 심화반: 주·야간반 기존전진생 | · 기초반: 금·토요일 각 30명 · 심화반: 금·토요일 기존전진생과 편입생 |
| 수업시간 | · 매주월요일 주간반 09:00-12:35 야간반 18:00-21:35 |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
| 수강료 | ₩ 300,000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 ₩ 300,000 · 광주은행: 148-107-3078033 (예금주: 광주여대) |
| 수료후 특전 |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공인대학 평생교육진흥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및 감사 추천 · 각급학교(특기직성 병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진흥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직성 병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
| 문의 | ☎ 062)530-3873-5 ☎ 지도교수: 010-2611-1171 | ☎ 062)950-3584-5 ☎ 지도교수: 011-614-4160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ie.jnu.ac.kr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